

폭행·폭언·부당지시 여전...직장 갑질에 '을의 한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년... '을'의 목소리 들어보니

“아파트 관리소장은 휴게시간에도 마트 직원처럼 의자에 앉아서 쉬지 말고 서 있다고 질책합니다. 휴게시간에 휴대전화 문자를 확인하는데도, 입주주민들이 일을 안 하고 휴대전화를 본다고 눈치를 줍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요. 시행됐다고 하는데 별로 달라진 것 같지 않아요.”

〈광주 A아파트 경비원〉

“코로나19에 걸린 것도 아니고 증상이 나타나도 없는데, 회사가 쉬라고 해서 휴직중입니다. 당장 임금이 100만원 가량 줄었어요. 복직하고 싶은데 회사에서 휴직을 요구해 자칫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광주 모 회사 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하 갑질금지법)으로 불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16일로 시행된 지 1년을 맞았다.

하지만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는 직장인들이 적지 않다. 노동인권단체 등에 제기되는 이른바 '직장 갑질' 행위도 여전히 끊

이지 않고 있다. 법의 사각지대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잇따르고 있다.

16일 한국공인노무사회 광주본부에 따르면 올 2분기(3~6월) 접수된 전국 직장 내 갑질 상담 건수는 4064건으로, 광주 지역 하루 평균 상담 건수가 5.6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3개월간 450건이 넘는 갑질 피해에 대한 상담이 진행됐다는 얘기다.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에도, 직장 내 갑질로 인한 피해가 여전하고 불이익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못하는 실태가 바뀌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자들은 “용기를 내 신고했지만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처벌규정도 없어 가해자는 별다른 제재도 받지 않고 마무리된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갑질 유형도 다양=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가 올 상반기 이태일로 전국에서 접수받은 직장 내 갑질 피해 사례는 1588건으로 월평균 265건에 달했다.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갑질 사례는 ▲

아파트 관리소장이 경비원에

“쉬는 시간에도 의자에 앉지 마라”

코로나 증상 없는데 “휴직하라”

업무 무관한 일 강요에 협박까지

용기 내 신고해도 조사 조차 안해

광주 3개월간 갑질 상담 4064건

폭행·폭언 ▲모욕·명예훼손 ▲따돌림·차별 ▲강요 ▲부당지시 등 5가지 형태로 장소와 지위를 따지지 않고 직장 내에서 발생했다.

업무와 무관한 일을 '강요'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사고과는 물론 본인과 같이 일할 수 없다”는 ‘협박’까지 당하는 실정이라는 게 해당 단체측 설명이다.

이번 달에도 광주시 노동센터를 찾는 직장인들의 상담은 이어지고 있다.

회사에 다니는 A씨는 직장동료가 업무 시간 이외에 업무와 무관한 장문의 문자

를 지속적으로 보내 괴롭다며 상담을 신청했다.

지난해에도 광주시 남구 한 동장은 창구 업무를 보는 여직원에게 컷속말로 “너 그날 맞지”라고 말하는 등 성폭력 발언을 해 직장 내 갑질 문제가 제기됐다.

화순전남대병원에서는 의사가 간호사들에게 “한심하다”, “개념없다”, “명청하다” 등 폭언과 의자를 발로 걷어차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해 논란이 됐다.

“차라리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라고 해야...” 갑질금지법 시행 1년을 맞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가 미흡하다 보니 불만의 목소리도 끊이지 않는다. 조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2차 피해 우려까지 나오면서 현행법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들도 많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법학회가 최근 개최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제도 1주년 토론회'에서는 지난 1년 동안 회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72%가 ‘없다’고 답했다. ‘줄었다’는 응답은 20%에 불과했다. 오히려 ‘늘었다’는 응답도 8%나 나왔다.

(사)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직장인의 45.4%가 아직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대응에 대해서도 ‘참거나 모르는 척 했다’가 62.9%로 가장 많았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들어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에도, 가해자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등 미비점을 서둘러 보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5인 이상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실제 피해자들이 많은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회사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징장 갑질을 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구조도 불거피하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박점우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사업주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피해자가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조속하게 적용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영광 중학생 성추행 신고 뒤 치료 받다 숨겨 유족 “교육당국 조치 미흡” 국민청원 호소문

영광의 한 중학생이 학교 내 성추행 신고를 한 뒤 병원치료를 받던 도중 숨겨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유족 측이 교육당국의 미흡한 조치를 지적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장문의 호소문을 올리고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16일 전남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영광 모 중학교 1학년 A군의 부모는 전날 학교 내 성폭력과 학교·상급기관의 미흡한

대처로 아픔을 호소하다 하늘나라에 갔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의 통해 만13살의 어린 나이에 생을 등진 아들의 억울한 사연을 올렸다.

A군의 어머니는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아무리 괴로워도 죽는 것보다 사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듯, 우리 아들은 살고 싶어 했다”며 “가해 학생과 분리조치만 해줬어도 이 지경에 이르진 않았을 것”

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유족 측은 청와대 국민청원과 함께 교육당국의 허술한 조치에 항의하며 전남도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에 대해 전남도교육청은 “사안이 민감한 데다 피해자와 가해자 측 주장이 엇갈려 현재 경찰이 조사 중”이라고 밝혔고, 경찰은 ‘성적인 장난을 서로 했었다’는 가해 학생 측 주장 등을 토대로 A군의 사망이 성폭력과 연관성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한편, A군의 어머니가 올린 청원글은 오후 7시 현재 3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사랑의 도시락 고마워요 16일 광주시 북구 관내 한 주공아파트에서 한 노인이 북구청 노인장애인복지과 직원들로부터 도시락을 전달받은 뒤, 문을 연 채 배웅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내고 도주...유족과 합의했지만 “집유기간 사고·운전자 바꿔치기...감형 안돼”

항소심도 3년 6개월 선고

무면허로 차를 몰다 사망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달아났던 60대 남성이 “징역 3년 6개월형은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진행중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했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발생한 사고인데다, 아들이 운전자라며 허위로 자백한 뒤에도 6일이 지나서야 뒤늦게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1심 형은 합리

적'이라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광주지법 형사 3부(부장판사 장용기)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3)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7시10분께 여수시 서부로 앞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으로 앞서가던 경운기 적재함을 들이받았고, 경운기 운전자는 도로 옆 언덕으로 추락했다. 경운기 운전자는 병원으로 옮

기던 중 숨졌다.

A씨는 아들에게 사고 현장 처리를 맡긴 뒤 자리를 떠났고 허위로 운전 사실을 자백한 아들에 대한 경찰 조사가 운전자 바꿔치기 수사로 이어지자 사고 뒤 6일이 지나 뒤늦게 자수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 생사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임에도 아들에게 처리를 맡긴 뒤 사고 현장을 이탈한 점, 아들은 허위 자백했고 A씨는 방관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한 점 등도 반영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항소를 기각했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버스·택시 등 사업용 차량

2주동안 집중 단속했더니

광주 법규 위반 735건

버스·택시 등 사업용 자동차에 대한 경찰의 2주 일정의 단속 결과, 735건이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12일까지 2주간 사업용 자동차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735건을 단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390%가 늘어난 것으로, 신호 위반·끼어들기·안정된 피차용 행위가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기계용 설명이다. 2주 간의 단속 일정을 고려하면 그만큼 사업용 자동차들의 교통 법규 위반 행위가 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경찰이 집중 단속에 앞서 1주일 간 단속 취지와 시간, 주요 단속 대상 등 단속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렸음에도, 적발 건수가 증가했다는 점에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당장, 경찰의 집중 단속이 이뤄지면서 해당 기간 내 사업용 차량의 사고 건수(87건)도 지난해 같은기간(96건)에 비해 9.4% 줄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행태가 일반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면서 “사업용 자동차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dok2000@kwangju.co.kr〉

농촌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마약 상습투약 7명 적발

농촌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마약을 상습적으로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광산경찰은 16일 태국인 A(35)씨 등 외국인 노동자 7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A씨 등은 영암지역 수박 농장과 무를 재배하면서 필로폰·대마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고창의 마약 공급책 B씨를 통해 마약을 구입, 주변 동료 외국인들에게 재판매하고 지난 5월부터 속소와 근무지 등에서 함께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필로폰을 1g당 50만~70만원에 구입한 뒤 0.1g당 10만원에 동료 외국인들에게 판매했다.

경찰은 A씨와 공급책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명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마약을 구입, 투약한 다른 외국인 근로자들을 쫓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대출
- 3~4개월 무이자 기간에 2~4% 낮은 금리로 대출
- 저리대출부터 상환하는 저리대출(저금리) 대출
- 저리대출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저금리 대출
- 저금리 대출 상환이 어려운 고객에게는 저금리 대출

평생 어부바 신협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명서,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지점

| | | | | | |
|---------------|---------------|---------------|----------------|---------------|---------------|
| 문흥지점 266-4150 | 양산지점 573-4150 | 운암지점 528-4150 | 운암산지점 513-4150 | 매곡지점 572-4150 | 첨단지점 576-4150 |
|---------------|---------------|---------------|----------------|---------------|---------------|